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모집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일반 정기적금 두 배 수준 이자 보장키로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적립시 만기 때 745만원 지급

전남도가 근로 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적립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제도를 도입, 11월 초부터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사업 주관은행인 광주은행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홍보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은행은 계좌 개설 및 납입, 만기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

장’에 1.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일반 정기적금의 두 배 수준의 이자를 보장키로 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동일 금액을 1대1 매칭 지원해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에 이자를 더해 74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적립금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달 말 시군 사업설명회를 거쳐 11월 초부터 읍면동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11월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 1000명을 선정하고 25일째부터 적립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최근 6개월 이상)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청년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희망금융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사업에 가입된 청년은 중복수혜자로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첫 해인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매년 500명씩 추가

모집해 2020년 이후 매년 25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통장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1월 초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사업에 참여한 광주은행 송중옥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당당하게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 지원지원 통장으로는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전라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도입한 것으로, 비수도권 도 단위에서는 최이다.

김정환 기자

동구,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일제점검에 나선다.

동구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동부경찰서와 여성친화시민참여단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공원, 시장,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 위치한 26개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동구는 여자화장실 점검 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등 여성점검단을 투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몰래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회수조치 및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개관15주년 기념공연

광주를 대표하는 국악 메카로 자리잡은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국악한마당을 갖는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빛고을 국악전수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3부에 걸쳐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1부에서는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 고보,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8개반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제2부는 공로패 및 모범상패 수여 등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제3부에서는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의 가야금연주와 임현빈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중 한 대목이 펼쳐진다.

남구, 제3회 복지성지 남구, 희망나눔 축제

광주 남구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 복지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오는 28일 열린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제3회 복지성지 남구! 희망나눔 축제’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주월동 비스포크 뷔페 푸른길공원에서 펼쳐진다.

남구가 주최하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주민들에게 공공복지서비스 및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 이용자에 대한 표창 및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밀그림 나왔다

광주 북구가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발맞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나선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 도시재생의 전환점이 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따라 ‘일동 야구마을 살리기’ 및 ‘평화시장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자체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을 비전으로 하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다.

광산구민 나눔활동 공동체 온기 훈훈

도산동 주민들은 지난 20일 다문화 가정 A씨 이사를 도왔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과 치매로 병원에 있어 A씨는 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가게를 꾸려간다. 딱한 사정을 안 도산동 주민들은 이날 A씨 이삿짐을 나르고, 필요한 가재도구를 마련해 선사했다. 바람꽃쫄쫄환경개선봉사단, 도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산동 자원봉사캠프, 어울림사랑나눔 봉사회 관계자들이 힘을 모았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도 따뜻하다. 무등아파트 입주주민들은 20일 오후 ‘노란점스Day’를 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린 밥상에서 각자 집에서 만든 부침개, 어묵, 나물, 떡 등을 나눠 먹은 것. 입주주민들은 ‘노란점스캠페인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매일 한 차례 음식을 정민해 나눈다. 주민 소통과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임형택 기자

“광주서 숙박하며 한국문화 체험하세요”

광주시, 외국인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수시 모집

광주시는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일반 가정집에서 숙박하면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을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다.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는 지난 2009년부터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의 성공 개화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등록된 호스트 가정 1326곳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게스트를 맞아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뤄내고 있다.

호스트 가정은 가족 중 1명 이상

이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고, 손님용 방(침구 포함)과 식탁, 조식을 제공하고 인종·종교·문화적 편견이 없는 가정이면 누구든 호스트 가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가정은 하루 기준 1인당 5만원의 봉사료를 지원받고 자원봉사 실적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스트로는 소숙과 신분이 분명한 외국인을 우선하며, 최근에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단기 방문 학생, 교환학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 중자매·우애도시 9곳과 교류회의

전남도는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매 및 우애도시 관계를 맺은 중국 9개 지방정부의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류회의는 24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7일까지 4일간 전남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중국 9개 지방정부에서 이례적으로 부주임급 등 관계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첫 날인 24일에는 중국 대표단의 전남 방문을 환영하는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 권한대행

의 환영사, 중국 저장성 천안(陳安) 부주임의 중국 참가자 대표 답사가 진행된다.

본격적인 교류회의는 둘째 날인 25일 개최된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부총장의 ‘지방정부 외교의 중요성 및 나아갈 길’이라는 기초강연과 신정호 목포대학교 교수의 ‘전남-중국 우호교류 전통과 미래협력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28일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도 참관, 농도 전남의 발전된 농업상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김정환 기자



전남중소중합지원센터, 희망을 그리다

고흥 한서마을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철식)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고흥군 한서마을이장 이공섭에 방문해 ‘2017 농촌 재능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하여 벽화 그리기, 쓰레기 줌기 등을 비롯한 마을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센터 임직원들은 이날 유지와 석류를 주로 생산하는 한서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벽화를 그리면서, 그간 감추어둔 미술적 재능을 맘껏 발휘했다.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와 한서마을의 인연은 지난 2015년 고흥군 대표 마을기업 참샘식품 영농조합법인 이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산하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추진한 ‘바

울기업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어 경영컨설팅, 교육, 운영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공섭 한서마을 이장과 김영임 참샘식품 대표 부부는 “평범하고 맛있었던 마을 벽화를 센터 임직원들이 우리 마을 대표 생산품인 유지와 석류로 멋지게 꾸며 주니 마을이 한껏 새롭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우철식 센터 본부장은 “앞으로도 마을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장애인·여성기업 등이 소재하는 마을을 찾아서 재능기부 형식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살기좋은 마을,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자가 모집됩니다”

고흥 · 구례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점·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 목 공 사 >> 창 업 상 담 >> 관 계 민 원 업 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 동 부 옴 부즈 만 위 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 e l : 062)512-0336 H · P : 010-3624-0338